ISSN 1598-0170 (Print)
ISSN 2287-1136 (Online)
http://www.jksii.or.kr

네트워크 사회운동과 SNS: Save Jeju Island (SJI) 운동 사례☆

Understanding the Roles and Limitations of SNS for Network Social Movements: A Case Study of "Save Jeju Island" Movement in South Korea

채 영 길[1*]
Younggil Chae

요 약

2010년 '아랍의 봄' 시기 연쇄적으로 발생한 북아프리카 전역의 민주화운동은 SNS가 사회운동을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의 가능성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실제 모바일과 SNS 기술은 첫째, 온/오프 운동을 활성화 시키고, 둘째, 새로운 형태의 운동 양식을 만들면서 셋째, 집단 정체성의 권능화 (Empowerment)를 촉진하고, 넷째 지구적 차원의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려는 운동을 조직화 하는데 효과적인 미디어 플랫폼을 제공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가상공간에서의 사회운동 조직은 지속성과 헌신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조직적인 변화를 유발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더군다나 온라인 사회운동은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간의 간극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이로 인해 사회 전반적 운동을 조직화하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디지털 사회운동에 대한 상반된 논의와 이론들을 바탕으로 SNS에 기반한 사회운동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제주도 살리기 (Save the Jeju Island: 이하 SJI)' 운동을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SJI라는 영문 Facebook 계정을 통해 제주도라는 지역적 운동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글로벌한 연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SNS가 사회운동을 지역을 넘어 지구적 차원으로 확산하는 데 있어서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사례를 제공해 준다. 또한 SJI 사례는 모바일과 인터넷 보급과 이용 환경에서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한국이라는 지역에서 조직된 운동이라는 점에서도 뉴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운동에 대한 논의를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이 연구는 SJI 운동이 가장 활발하던 2012년 1월에서 7월까지 7개월 동안 SJI 영문 페이스북의 내용분석을 통해 SJI 운동의 SNS에서 소통되는 메세지와 이용자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 주제어: 소셜미디어, 사회운동, 강정마을살리기, 글로벌 사회운동, 국제연대

ABSTRACT

Since the Arab spring in 2010, SNS prompted discussions about the roles to organize collective actions. First of all, mobile media and SNS help to mobilize both on and offline social movement, second, to create new forms of collective actions, third, to organize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across the world, fourth, to empower movement participants to develop new collective identities. On the other hand, the same technologies also hinder social movements from developing continuity and dedication. In addition, the problems of digital divide might aggravate the divisive process to organize collective actions across the world. This research is built on these ongoing arguments about the potentials and limitations of new media technologies. In particular, this research tries to move beyond the confrontational approaches to the media through the case study of Save The Jeju Island social movements on Facebook. The movement SNS on Facebook aims to provide as well as organize international SMOs and activists that might help deeper understandings on the potentials and limitations of online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global social movements.

☞ Key words: SNS, Social media, Global social movements, Intranational solidarity, Save Jeju Island

1. 서 론

모든 지역과 그 지역내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오늘날 네트워크 사회에서 지역의

1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130-791, Korea
* Corresponding author (yg_chae@hufs.ac.kr)
[Received 3 September 2013, Reviewed 1 October 2013, Accepted 9 Januaryr 2014]
☆ 본 논문은 2013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 본 논문은 2013년도 인터넷정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우수논문 추천에 따라 확장 및 수정된 논문임.

http://dx.doi.org/10.7472/jksii.2014.15.1.89

정체성은 항상 변화의 도전을 받는다 [1]. 카스텔은 네트워크 사회 이전에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지정학에 의해 규정되던 도전이 오늘날에 와서는 지역 스스로가 문제를 규정하고 집단적인 저항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과 역사를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형 정체성'의 형성 가능성이 증대된다고 보았다. 이 프로젝트형 정체성은 서로 분리된 지역과 개개인들이 서로를 인식하고 상호 작용하면서 스스로를 반추하는 (Reflexibility) 과정에서 집단적 주체 (Collective subjects)로 결집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특히 지구적 차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연결성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한 시공간의 초월성은 그러한 반추적 삶의 재조정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사회가 지니는 이러한 자기성찰적 집단의 조직적 저항의 광범위한 확산은 오늘날 사회를 '사회운동의 사회 (Social movement society)'로 변화시키면서 지역 공동체의 대안적 정치 개입을 일상적 활동으로 만든다 [2][3]. 즉, 과거에는 지역 공동체의 집단적 저항이 비정상적이고 탈법적 정치 행위로 받아 들여졌다면 오늘날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하나의 자연스런 공동체의 자기 실현 과정이자 정치적 과정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 사회에서 시공간을 달리하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그리고 지역과 지역을 상호 연결하는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스마트 맙(Smart mob), 집단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 들이 참여적 문화 (Particpatory culture)를 만들면서 새로운 협력적 저항의 네트워크를 일상화 하는데 핵심적 수단을 제공해 준다 [4-6].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해 군중이 가지게 되는 이러한 프로젝트형 정체성과 그들의 문화가 만들어 내는 것은 다양하고 지역의 한계를 벗어난 혁신적인 연대 (Solidarity)로써 점차 일상화된 글로벌한 사회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2010년 북아프리카 지역의 아랍 지역 국가에 연쇄적으로 발생한 소위 '아랍의 봄' 시위들은 이러한 네트워크 기술과 사회운동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있다 [7-9].

하지만 이와 반대로 네트워크 기반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그러한 집단적 저항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대를 가능하게 할지라도 새로운 정체성의 집단을 형성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힘들며 무엇보다 해당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할 것이라는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9-13]. 특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만들어 내는 약한 관계 (Weak ties)는 집단적 행동을 조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집단적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동종집단화만 강화되거나 또는 진지하고 적극적인 시민참여형 운동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관계는 네트워크 기술에 의해 새롭게 전환되지 않을 만큼 공고한 것이므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Clicktivism 또는 Keyboard activism은 기존의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네트워크 사회에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기반한 사회운동과 그로인한 대안적 정체성의 형성의 가능성과 관련한 상반된 입장들은 결국,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재점검과 현실적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15-17].

이 연구는 바로 이 연구는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에서 지역과 공동체의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운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구적 차원의 연대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제주도 살리기 (Save the Jeju Island: 이하 SJI)라는 영문 Facebook 계정을 통해 제주도라는 지역적 운동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글로벌한 연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SNS가 사회운동을 지역을 넘어 지구적 차원으로 확산하는 데 있어서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사례를 제공해 준다. 또한 SJI 사례는 모바일과 인터넷 보급과 이용 환경에서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한국이라는 지역에서 조직된 운동이라는 점에서도 뉴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운동에 대한 논의를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이 연구는 SJI 운동이 가장 활발하던 2012년 1월에서 7월까지 7개월 동안 SJI 영문 페이스북의 내용분석을 통해 SJI 운동의 SNS에서 소통되는 메세지와 이용자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제주도라는 동북아의 매우 작은 지역에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현대사회에서 사회운동은 더 이상 비정상적이거나 비일상적인 정치화 과정이 아닌 일상화되고 정상적인 집단적 정치화 과정으로 자리잡고 있다 [1,2]. 이러한 사회운동의 일상화는 오늘날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의해 더 많은 지역과 공동체를 포섭하면서 새롭고 다양한 방식의 운동 양식과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17]. 하지만 네트워크 사회가 만들어 내는 이러한 거시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기술이 가능하게 하는 사회운동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은 채 지속적인 논쟁

이 진행중이다.

2.1 네트워크 사회운동

사회운동은 전통적으로 '공통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집단적 행위'로 규정된다 [18]. 미디어 연구에서는 사회운동을 통한 사회변화과정에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의 종류, 특성, 그리고 역할등을 탐색하는데 주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매스미디어가 사회 일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미디어에 대한 독점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때 사회운동의 거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미디어가 만들어 내는 담론구조에 사회운동 세력의 '대안적 담론'을 반영하고 이를 확산시킬 방법들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었다 [2]. 즉, 매스미디어에 어떻게 접근하고 미디어의 관심을 SMO의 관심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담론의 재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운동은 사회적 관계망과 그 관계망이 공유하는 다양한 가치와 협력 방식을 고려하여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는 앞서 논의한 네트워크 사회의 집단적 정체성 변화 과정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오늘날 사회운동은 '공유된 집단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인 또는 집단과 조직들의 정치적 또는 문화적 개입을 위한 상호소통의 네트워크'로 규정된다 [10]. 카스텔 [1]은 사회운동의 그러한 네트워크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네트워크 사회운동 (Networked social movement)'의 개념을 제시면서 네트워크 사회운동은 1)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2) 네트워크 기술을 바탕으로 한 3) 느슨하면서 준 자발적 연대를 통한 4) 지역에 기반하고 있지만 지구적 차원의 운동을 지향하는 경향을 지닌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운동은 운동을 조직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일단 조직화된 운동은 그 스스로가 자발적인 연대를 형성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과거 산업화 시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운동방식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운동 방식을 만들어 낸다. 특히 네트워크 사회운동은 과거의 오프라인 운동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상의 온라인 사회운동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진화해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온-오프라인 사회운동 관계에 따라 크게 세가지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온라인에서 조직된 운동이 오프라인으로 확산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과테말라의 'Justica Rodiro Rosenberg'운동이나 'Movimiento Civico Nacional'과 같은 사회운동은 이 지역의 뿌리깊은 부패와 부정으로 악화되어 있던 여론이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으며 전국적 규모의 오프라인 운동으로 전환되었다 [8]. 이러한 급격한 사회변화의 징후가 가상공간에서 현실공간으로 이동한 예들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발견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튀니지에서 촉발된 '아랍의 봄'은 이 지역의 정부가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기타 소셜미디어를 강제로 차단한 뒤에도 일반 블로거들과 민주화 운동 조직들에 의해 자생적인 가상의 운동 네트워크를 통해 대규모의 오프라인 시민혁명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7]. 국내에서도 지난 2008년 한미간 FTA 협상 과정에서 이슈가 된 미국산 소고기의 안정성을 두고 전국적 촛불시위가 형성된 과정에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특유의 개인적 창의성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집단지성'의 출현을 견인하고 오프라인 참여성을 가능하게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4]..

두 번째의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조직된 운동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참여와 조직화를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시위와 집회를 조정하기도 한다. 2010년 토론토에서 있었던 G20 반대를 위한 국제적 시위는 전세계에서 모인 다양한 시민, 노동, 환경 등의 운동 단체들로 구성되었는데 트위터(Twitter)와 유튜브(YouTube), 그리고 플리커 (Flickr)와 같은 소셜미디어가 없었다면 다양하고 광범위한 세계시민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며 효과적으로 반대 시위를 펼치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9]. 국내에서도 SMO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사회운동의 경우 소셜미디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조직된 운동이 운동의 국면을 전환하거나 그 영향력과 조직을 조정 또는 확대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도 한다 [19].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조직(Social Movement Organization: 이하 SMO)들은 그들이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다양한 시위 전술과 이벤트들을 기획한다. 또한 지역과 공동체에 기반을 둔 지역 운동은 보다 광범위한 지역과 공동체의 연대를 얻고 운동의 국면을 전환시키는 방식을 모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재조직화와 운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 방식과 내용의 기획과 실천은 인력과 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SMO들에게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SNS는 이럴 경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래어와 아엘스트 [16]는 사회운동의 형태와 정치적 참여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가 활용되는 방식 역시 SMO마다 다르다고 주장한다. 참여 수준이 낮은 사회운

동의 경우 국면을 전환하는 데 있어 높은 리스크를 감안하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소셜미디어 전술을 쓸 수도 있지만 그 반대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낮은 참여에 따른 운동의 지원 수단으로 소셜미디어가 동원될 경우와 높은 참여와 운동의 근원 캠프로서의 SMO가 동원하는 소셜미디어는 그 내용과 방식에 있어 전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이한 수준의 SMO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자 할 때 선택하는 것은 설득적이거나 또는 그 반대로 대치적인 방식의 전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2010년 한진중공업사태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소위 '희망버스'가 대표적인 오프라인 운동의 온라인 운동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2010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400명의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정리해고하자 노조가 이에 반발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촉발된 노사분규 사태이다. 당시 파업에 참여한 김진숙 지도위원이 한진 중고업의 크레인에 올라 309일 간의 고공농성을 펼쳤으나 일반시민에 의해 외면 받아오던 노동운동은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사태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트위터 등 SNS를 통한 고공농성 중계가 이루어진 후 급변하여 노동 및 시민운동 활동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및 학생들의 폭발적 지지와 참여를 이끌게 된다. 희망버스는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운동화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의 상징이 되었다는 데서 보듯이 네트워크 사회운동은 침체된 기존의 노동운동 진영과 시민간의 재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25].

이러한 온라인/ 오프라인 사회운동의 다양한 관계들은 공통적으로 오프라인 운동으로의 전환, 오프라인 운동의 강화 또는 국면의 전환, 그리고 대안적 운동 방식과 내용의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소셜미디어가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사회운동은 잠재적인 사회 공통의 문제가 상징적 표현을 통해 가시화된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운동의 전조로서 '징후적 (Symptomatic)' 운동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오프라인으로 이동하거나 오프라인 운동이 가상공간으로 침투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는 점에서 '전환적 (Transitory)' 이며 상호보완적 (Complementary)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오늘날 네트워크 사회운동은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공유하는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온/ 오프 관계망의 다양한 조합을 바탕으로 조직하는 실천행위로 파악할 수 있다.

2.2. 소셜미디어의 가능성과 한계

네트워크 사회운동을 조직화 하는 데 있어 나타나는 소셜미디어의 징후적, 전환적, 그리고 상호보완적 운동의 특성은 소셜 미디어가 지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적 가능성 (Affordance)에 기반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나 보이드 [15]는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는 지속성 (Persistence), 복제성 (Replicability), 확장성 (Scalability), 그리고 검색성 (Searchability)과 같은 네 가지 가능성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p. 46). 그에 따르면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남긴 표현들은 자동적으로 저장되고 기록되면서 (지속성) 공중들에 의해 언제나 잠재적으로 확산될 수 있고 (확장성) 복제 가능한 형태 (복제성)를 지니고 있어 필요 할 경우 언제나 검색이 가능하다 (검색성)는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가능성은 네트워크 공중 (Networked public)을 만들고 이들에 의해 느슨하지만 조직적인 사회 운동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특히 페이스북은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네가지 가능성들이 FB 이용자들이 맺는 다양한 수준의 관계, 참여, 그리고 표현방식에 의해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할로우 [8]의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한 사회운동의 연구에서 페이스북 유저들은 그들의 네트워크상 '친구'들이 공통으로 맺는 SMO나 관련 조직 및 단체를 확인하고 '친구' 맺기를 하며 그렇게 맺어진 친밀한 관계를 통해 다양한 수준의 댓글 (Comment)을 달거나 공유 (Share) 또는 '좋아함' (Like)를 클릭한다. 이러한 친밀한 표현방식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집단적인 정체성과 신뢰를 형성시키면서 조직화되지 않은 조직적 운동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하워드 등은 [7] 소셜미디어가 그러한 조직화의 플랫폼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네트워크화된 공중이 참여하는 대안적 공론장의 기능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주류 미디어가 통제하고 보도하지 않는 정보가 SMO가 조직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SMO를 비롯한 '친구'들에 의해 생산되고 공유되며 토론되고 확산되면서 비판적 공중을 가시적으로 형성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는 새로운 방식의 집단적 행동 레퍼토리 (Collective action repertoire)도 제공해 준다 [16]. 개인들과 집단의 사회적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 동원가능한 수단들인 '집단행동 레퍼토리'는 [20] 사회운동의 전술과 행동 방식을 결정짓는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미디어는 참여수준과 인터넷 활용 정도에 따라 가상 시위, 집회, 청원과 같은 기존 사회운동 방식의 온라인 버전과 같은 낮은 수준의 레퍼토

리도 가능할 뿐 아니라 해킹, 이메일 폭탄, 디도스 등 좀 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시위방법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셜미디어가 만들어 내는 사회운동의 새로운 가능성과 운동방식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사회운동은 가상의 공간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회적이며 자기만족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궁극적인 사회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비판적 주장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디 딘 [21]은 네트워크 사회운동은 단순한 '기술적 물신주의 (Technological fetishism)' 일 따름이며 자기성찰적이 아닌 '상호수동성 (Interpassivity)만을 강화시키고 온라인에서의 집단 참여는 실제 참여를 '대체'할 뿐이라고 비판한다. 이는 소셜미디어가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조건들과 새롭고 다양한 사회운동의 양식들이 오히려 기존의 공식적인 정치, 사회, 경제적 관계들을 보호하고 안정화 시키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이용 기술, 접근 가능성, 그리고 필요성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 소득, 인종에 따라 분명히 차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회운동은 사회 일반의 참여를 통한 공중을 형성시킬 수 없다.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운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Clicktivism, Keyboard activism이 기존 사회관계의 불평등성 - 지역, 성, 계급 등 -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보존하고 오히려 공고히 한다는 비판에 따른다 [17]. 모로조프는[12] 이를 넷 환상 (Net delusion)이라며 페이스북이 맺는 백만명의 느슨한 연대는 거리에서 맺는 천명의 강한 연대에 의한 운동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오바르와 그의 동료들은 [14] 페이스북을 이용한 운동에 참여한 개인들을 분석한 결과 '친구'들은 SMO의 페이스북 사이트를 개인적 관심과 공식적 관심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제 운동을 조직화 할 수 있는 약한 연대로도 발전하지 못함을 발견하였다.

소셜미디어가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사회운동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적 입장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기술 결정론에 대한 전통적 논쟁의 연속선상에 있다. 미디어 기술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유토피아적 사고에 맞서 사회구조적 문제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구조 결정론간의 대립이 소셜미디어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디어 기술에 대한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라는 편향적 판단은 미디어 기술이 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정 미디어 기술로 표현되고 변화되는 사회적 양상과 사회구조에 의해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소통 방식의 특성을 이해하는 '상호의존적 (Interdependency)' 태도가 더욱 필요하다 [1]. 기술은 사회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여러 필요 조건들 중 하나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며 특히 네트워크 미디어를 바탕으로 개인과 개인, 사회와 사회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관계망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운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상호의존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이 연구는 그러한 네트워크 미디어가 가능하게 하지만 기존의 사회관계에 의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가능성과 방식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제주도 살리기 (Save the Jeju Island: SJI)라는 영문 FB 계정을 통해 제주도라는 지역적 운동의 지구적 차원의 연대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3. 연구문제 및 방법

이러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1) SJI의 FB 계정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특성은 어떠한가?
2) SJI의 FB 계정에서 생산되는 포스팅 메세지의 형식적 특성은 어떠한가?
3) SIJ의 FB 계정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표현방식의 특성은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본 연구는 SJI 영문 FB 계정(https://www.facebook.com/SaveJeju)을 대상으로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자료는 강정마을 살리기 운동이 대내외적으로 매우 고조되던 2012년 1월부터 7월31일까지 7개월간 FB에 게시된 모든 게시물과 자료 수집 시점인 2012년 8월1일 당시의 SJI 참여자의 프로파일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2011년 말과 2012년 초에는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국제 반전평화 및 환경 운동 단체에 알려 지기 시작하면서 지역 운동이 점차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었다. 알자지라 (Al Zazeera)가 이 운동에 대한 다큐멘타리와 뉴스를 방송하면서 세계 여론을 환기 시킨 것도 이 시점이다. 따라서 이 운동이 본격적으로 국제 연대를 위한 다양한 미디어 전략을 실행하고 국제 여론의 지지를 얻기 시작한 2012년부터 7개월간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것은 이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의 수집은 참여자의 증감을 고려하여 8월1일 하루 자료를 전자파일로 다운 받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인 게시물은 모두 575건, 참여자 1,856명의 프로파일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유목은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참가자의 성, 학력, 국적, 직업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참여자의 거주지 및 게재된 메세지의 형식, 게시글의 작성자의 성격 및 메세지의 내용적 특성과 정보 소스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유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연구문제와 분석유목
(Table 1) Research questions and measurements

구분	유목	비고
연구문제1	성/ 학력/ 국적/ 직업 거주지	참여자 특성 파악을 통해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사회구조적 조건 및 특성 파악
연구문제2	포스팅 작성/ 작성자/ 형식/ 공유 플랫폼	소셜미디어의 네가지 Affordance의 가능성 검증
연구문제3	포스트 메세지 성격/ 연대 표현방식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레퍼토리의 특성 파악

분석유목은 각각의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기술적 가능성과 구조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거주지 유목은 연구문제 1과 관련되며 커뮤니케이션 Affordance는 소셜미디어가 가능하게 하는 소통내용의 지속성, 복제성, 확장성, 그리고 검색성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소통기회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사회운동에서 이러한 새로운 소통기회는 운동의 조직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회가 누구에 의해, 어떠한 내용과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지를 파악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Affordance는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네트워크 기회로 규정하고 포스팅 작성/ 작성자/ 형식/ 공유 플랫폼의 종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레퍼토리를 분석하기 위해 포스트 메세지가 정보전달/ 행동유발/ 네트워킹과 같은 주요 네트워크 레퍼토리의 목적중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페이스북의 Like, Share, Comment와 같은 고유의 표현방식을 통한 연대의 가능성을 이해하고자 연대 표현방식을 분석 유목으로 정하였다. 자료의 내용분석과 해석은 빈도분석을 바탕으로 하였다. 빈도분석은 분석 유목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고 향후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관련 소재와 주제에 대해 기본적 이해를 돕는데 유용하다. 이 연구는 네트워크 사회운동에 대한 상반된 입장들을 특정 사례에 대한 이해를 통해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전 정보를 얻고자 기획되었기에 빈도분석으로도 충분한 연구목적을 추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분석은 SPSS v. 18 통계 패키지로 실시하였다.

4. 분 석

SJI 운동의 발단은 1995년 당시 우파 정권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하지만 2002년 당시 제주도 지방 정부의 강한 반발로 정부는 그러한 계획을 철회하였으나 2007년 우파 정권과 우파 제주도 지역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제주도 해군기지는 다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90% 이상의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역정부는 여러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수단을 통해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게 되었다. 제주도는 4.3 사태라는 전쟁과 이념의 분쟁의 아픈 역사를 안고 있는 지역인 동시에 제주도는 한반도에서 자연과 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는 환경의 섬이다. 이는 SJI 운동을 자연스레 반전평화와 환경 운동으로 발전시켰고 해군기지가 건설될 강정마을의 '구럼비'라는 자연 화산지대는 그러한 반전평화와 환경 운동의 상징이 됨과 동시에 국제연대를 위한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이에따라 SJI 운동은 국제 시민사회와의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이슈를 가지고 국제 연대를 기획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국제화를 추진하게 된다 [22].

SJI 의 FB 계정은 국제 연대를 위한 영문 사이트로서 국내외 외국 활동가와 시민들에게 제주 강정 마을 살리기 운동의 당위성을 알리고 다양한 연대 활동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의 다양한 네트워킹 기술과 쌍방향적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그림 1은 이러한 SJI 영문 FB 사이트의 국제 연대의 목적과 성과를 잘 나타내 준다. 왼쪽의 사진은 SJI가 세계적 반전평화운동가이자 좌파 지식인인 노암 촘스키와 촬영한 사진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이미지의 확산과 이를 통한 연대 강화 전략의 효율성이 잘 나타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오른쪽의 사진은 SJI 영문 사이트와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한

미국인 시민활동가의 게시글을 캡쳐한 것이다. Bruce Gagnon은 반전평화운동가로써 SJI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의 FB 사이트와 여러 소셜미디어를 통해 SJI 운동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소셜미디어가 국제 연대를 위한 SMO의 효율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잘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참여자와 게시글의 내용적 특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러한 가능성과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1) Save Jeju Island 국제연대 Facebook 포스팅
(Figure 1) Fostings on Save Jeju Island's Facebook

4.1 SJI 참여자의 특성

표 1은 SJI와 친구를 맺고 있는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를 보여준다. 개인의 프로파일에서 성별을 밝힌 1, 237명의 참여자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6.4% 정도 더 많이 SJI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726명중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경우가 14.2%로 가장 적었으며 85.8%인 723명의 참여자는 모두 대학 재학 또는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0.5%는 석사 이상의 고학력을 지니고 있어 SJI 소셜미디어 사회운동 참여자들의 교육수준은 우리나라 일반 성인인구 중 중졸이하/ 고졸 인구 비율 60%에 비해 (교육부, 2012)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SJI의 국제 연대를 위한 페이스북 계정이 대화를 제외한 주요 포스팅이 영어로 작성되어져 있어 영어로 소통이 힘들거나 또는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접근이 제한되었을 수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화와 상당수의 정보들이 한글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90% 가까운 참여자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SJI와 같은 사회운동에 있어 학력이 주요한 변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음을 짐작케 한다.

SJI 페이스북 영문 계정의 주요 참여자들의 국적은 표 1과 같이 한국-미국-아시아-유럽-일본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 국적을 가진 참여자가 전체의 67.8%로 다른 국적을 가진 참여자 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계정이 한국이 아닌 다양한 국제시민사회의 연대와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만들어 졌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32.2%)보다 한국인의 참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인중에서는 미국이 전체 외국인 참여자의 4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럽과 호주 등을 포함하면 외국인 중 61.4%가 서구 선진국 출신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일본, 아시아 등 인접 지역의 국가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국적을 알 수 있는 참여자 중 10%만이 아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외국인 중에서 30.8%로 서구 지역의 참여 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의 사회운동의 국제적 연대가 지역적 근접성 (Proximity)보다 영어 또는 기타 정치, 사회, 또는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해 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특히 제주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경우는 이 지역과 근접성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수에서 가장 적은 지역 중 하나이다. 이는 아마도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중국의 검열을 받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국제 연대는 연대를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의 소셜미디어 이용환경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SJI 운동 참여자들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일반직장이 전체의 50.9%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예술, 교육, 법률, 의료, 프리랜서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18.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반직장과 전문직 종사자를 모두 합할 경우 전체의 70% 가까운 사람이 직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페이스북의 주 이용 연령대가 30대 직장인임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시민사회단체가 9.3%로 낮은 참가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학생과 시민사회가 과거 우리나라 사회운동의 중추였다면 적어도 오늘날 소셜미디어 공간에서는 이들보다 일반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새로운 사회 변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층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가지게 한다.

(표 2) FB 친구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Table 2) Participants demographic distribution

구분		% (빈도)
성	여성	53.2 (658)
	남성	46.8 (579)
	소계	**100 (1.237)**
학력	초·중·고	14.2 (103))
	대학	65.3 (474)
	대학원	20.5 (149)
	소계	**100 (726)**
국적	한국	67.8 (374)
	중국	0.2 (1)
	일본	2.4 (13)
	기타 아시아	7.4 (41)
	미국	13.8 (76)
	유럽	4.9 (27)
	호주	1.1 (6)
	남미	0. 7(4)
	아프리카	0.9 (5)
	기타	0.9 (5)
	소계	**100 (552)**
직업	일반직장	50.9 (327)
	전문직	18.6 (120)
	시민사회단체	9.3 (60)
	언론	2.6 (17)
	학생	10.4 (67)
	종교	5.9 (38)
	기타	2.3 (15)
	소계	**100 (644)**

4.2 SJI 참여지역의 특성

표 2는 참여자들 중 프로파일에서 거주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1,064명의 지역별 거주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거주지가 한국인 경우가 전체의 60.9%, 한국이 아닌 외국이 전체의 39.1%를 차지하고 있어 참여자의 국적과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을 통한 국제적 연대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참여자의 거주지 분포에서 보여주는 사실은 제주도라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 제주도 주민 보다 서울시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경우 30.6%,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의 경우 9.1%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전체의 39.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가 6.3%, 그리고 인접한 지역인 전라도가 3.7%인 점을 감안하면 SJI 운동이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소셜미디어에서 지역의 운동은 지역적 근접성이 그다지 큰 참여 유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참여자의 거주지와 표 1의 참여자의 국적을 관련 시켜 분석을 하면 영문으로 된 사회운동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미권을 포함한 서구 선진국 등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Affluent) 지역 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FB 친구의 지역 분포 geographical distribution
(Table 3) Participant's geographical distribution

구분	% (빈도)
서울시	30.6 (239)
경기도	9.1 (71)
충청도	2.3 (18)
강원도	1.3 (10)
전라도	3.7 (29)
경상도	6.3 (49)
제주도	6.3 (49)
국외	39.1 (305)
합계	100 (1,064)

4.3 SJI 포스팅 메세지의 특성

포스팅 메세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참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가 스스로 관심있는 주제나 주장을 표현하고 상호교환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사회운동이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며 이를 통해 운동을 조직화하는 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표 3은 포스팅 메세지의 종류를 분석한 것으로 먼저 포스팅의 메세지가 SJI 영문 계정에 처음으로 작성된 원글일 경우가 전체의 38.7%로 나타나 SJI 페이스북의 영문 계정의 포스팅 메세지는 상당수가 다른 온/오프 매체 또는 플랫폼과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의 61.3%는 공유된 포스팅으로써 이는 디지털화된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는 매체와 플랫폼에 상관없이 손쉽게 복제 및 유통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동시에 소셜미디어의 국제적 연대는 SMO의 운동의 방식과 내용의 확대 재생산을 통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포스팅 작성자를 살펴보면 계정 소유자, 즉, SJI 운영자(팀)이 올린 글보다 일반 개인이 올린 글이 42.5%로 가장 많으며 SJI 관련 SMO들 또는 기타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조직들이 올린 글도 27.5%로 70%의 포스팅 메세지들이 계정 소유자 이외의 관련 또는 관심 참여자 및 조직

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운동 참여자들은 SMO에 의해 생성되는 정보나 메세지 이외에 조직 밖에 존재하는 잠재적 참여자들의 목소리와 의견과 지지 등 다양한 여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포스팅의 특성
(Table 4) Postings

포스팅	구분	% (빈도)
포스팅 작성	원글	38.7 (222)
	공유	61.3 (351)
포스팅 작성자	계정소유자	30.0 (158)
	조직 및 단체	27.5 (172)
	개인	42.5 (245)
포스팅 형식	텍스트	17.1 (77)
	사진	3.8 (17)
	웹	10.0 (45)
	텍스트+사진	25.8 (116)
	텍스트+오디오/비주얼	12.9 (58)
	텍스트+웹	28.4 (128)
	기타	2.0 (9)

페이스북은 텍스트, 사진, 동영상 등 온라인 상에서 구현이 가능한 거의 모든 멀티미디어 서비스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SJI 역시 이러한 다양한 미디어 포맷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포스팅 메세지의 형식을 보면 텍스트, 사진, 웹, 오디오./ 비주얼 등과 같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포맷의 메세지를 게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메세지들은 특정 미디어 포맷 대신 두가지 이상의 미디어 형식을 바탕으로 메세지를 게재하고 있었는데 텍스트+웹이 전체의 28.4%로 가장 많았으며 텍스트+사진이 전체의 25.8%, 그리고 텍스트+오디오/ 비주얼이 12.9%를 차지해 게재된 컨텐츠의 67.1%는 두 가지 이상의 미디어 포맷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복수 포맷형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텍스트 (17.1%) 또는 사진 (3.8%) 보다 시각적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는 다양한 형태의 메세지들은 페이스북 외부에 있는 다른 소셜미디어와의 연동되어 게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SJI 계정과 공유되고 있는 컨텐츠의 상당부분은 강정마을 살리기 운동과 관련된 웹사이트들에서 넘어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와 블로그, 그리고 트위터 역시 SJI 계정과 컨테츠 연동이 빈번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Cross-media 또는 Cross-platform의 특성은 다양한 미디어 포맷의 구현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특정 매체 또는 미디어에서 생산된 디지털 컨텐츠의 복제와 확산이 다른 매체 또는 미디어까지 확대 되어 사회운동을 효율적으로 조직화 하는데 긍정적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사용한 플랫폼
(Table 5) Accessed platforms

구분	% (빈도)
웹사이트	63.6 (166))
YouTube	28.3 (74)
Twitter	1.2 (3)
블로그	6.9 (18)
합계	100 (261)

4.4 SJI 포스팅 메세지의 특성

SJI 영문 페이스북 계정의 목표는 강정마을 살리기 운동의 국제적 연대 강화를 통한 정부의 해군군사기지 건설을 막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게재된 메세지의 성격을 '정보제공', '행동유발', 그리고 '네트워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분석대상 575개의 게재된 컨텐츠의 76.9%가 강정마을 살리기 운동과 관련한 배경 정보, 지식, 그리고 행사 및 이벤트와 관련된 소식을 알려주는 정보제공의 성격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국제연대를 위해 강정마을 운동의 목표, 배경, 그리고 운동의 진행과정에 대해 외국 관련 단체와 개인들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매스미디어적인 도구로서 소셜미디어의 이용은 소셜네트워크가 네트워킹의 중요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제한적인 방식일 수도 있다. 분석에 의하면 게재된 컨텐츠의 행동유발이 10.9%, 그리고 네트워킹이 1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소셜미디어를 통한 다양하고 새로운 온라인 시위를 조직화 하거나 국내외 여러 지역과 조직 및 개인들과 네트워킹을 확대할 수 있는 역할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행동유발과 관련하여 온라인 청원과 집회 및 이벤트 참석을 독려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네트워킹은 SJI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SMO 또는 조직 및 단체의 가입을 권유하거

나 소개함으로써 운동 조직의 연대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표 6) 포스팅 메시지의 특성
(Table 6) Characteristics of post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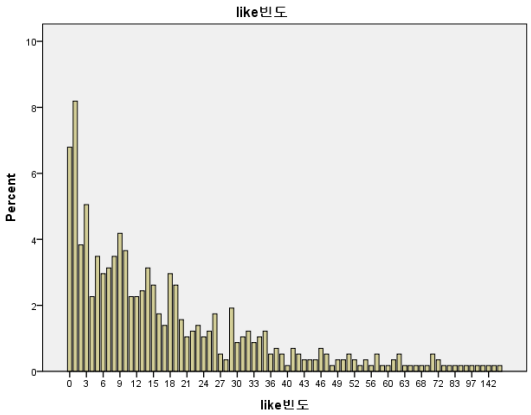
구분	% (빈도)
정보제공	76.9 (429)
행동유발	10.9 (61)
네트워킹	12.2 (68)
합계	100 (575)

이와 같이 FB를 통한 직접적인 행동유발과 네트워킹의 형식과 내용은 정보제공보다 그 중요도와 다양성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인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플랫폼 상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대화와 표현방식에 의해 약한 유대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때로는 강한 연대로 발전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FB에서 행해지는 연대의 표현방식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FB의 특징적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Like, Share, Comment의 빈도의 분포를 살펴보고 네트워킹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분석 게재물 575개중에서 50% 가까운 47%의 글들은 10개 미만의 'Like'를 받았으며 이중에서 거의 반은 5개 이하의 Like를 받았다. 이는 전체 분석 대상 참여자 1,856명중에서 0.54%만이 SJI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게시물에 직접적인 동의 또는 지지의 의사 표현을 한 것이다. 또한 Like의 빈도수가 클수록 전체 참여자의 수는 줄어들면서 그림 1과 같이 '롱테일 (Longtail)'의 형태를 띠게 된다. 즉, 게시글과 관련한 참여자의 최소한의 의사 표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Like는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이용자의 선택 행위 경향이 드러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축소시킬 수는 없을 가능성이 있다 (Anderson, 2006).

좀 더 적극적인 연대의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공유와 댓글 역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데 다만 Like보다 집중의 경향성이 좀 더 강하다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 특히 Comment를 하는 매우 적극적인 의사표션 방식은 Like와 Share보다 더욱 강한 편향성을 지니고 있어 소셜미디어에서 연대를 위한 표현 방식의 적극적 참여 정도가 클수록 Longtail의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Share의 경우 10개 미만의 경우가 전체 빈도 분포에서 95.5%를 차지하고 있으며 Comment의 경우는 99.5%가 10개 이하의 빈도를 나타내고 있어 의사표현의 적극성과 빈도수는 서로 반비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지지 표현 방식
(Table 7) Solidary expressions

구분	% (빈도)
좋아함 (Like)	6.8 (0)
	22.9 (1~5)
	17.4 (6~10)
	소계 47 (0~10)
	12.8 (11~15)
	10.2 (16~20)
	소계 23 (11~20)
	6.0 (21~25)
	5.4 (26~30)
	소계 11.4 (21~30)
	5.4 (31~35)
	1.9 (36~40)
	소계 7.3 (31~40)
	2.2 (41~45)
	2.1 (46~50)
	소계 4.3 (41~50)
	1.4 (51~55)
	1.1 (56~60)
	소계 2.5 (51~60)
	1.4 (61~65)
	3.3 (66~631)
	소계 4.7 (61~631)
	합계 100 (0~631)
공유 (Share)	55.7 (0)
	39.2 (1~5)
	0.6 (6~10)
	소계 95.5 (0~10)
	2.6 (11~15)
	0.5 (16~20)
	소계 3.1 (11~20)
	0.7 (21~25)
	0.7 (26~150)
	소계 1.4 (21~ 150)
	합계 100 (0~150)
댓글 (Comment)	56.2 (0)
	41.9 (1~5)
	1.4 (6~10)
	소계 99.5 (0~10)
	0.5 (11~116)
	합계 100 (0~116)



(그림 2) 'Like' 분포
(Figure 2) 'Like' distribution

(표 8) 포스팅 메세지 소스
(Table 8) Origined source of Posted messages

구분	% (빈도)
언론사	23.7 (132)
시민사회단체	16.3 (91)
SJI SMO	35.5 (198)
개인 (지식인)	18.8 (108)
기타	5.0 (28)
합계	100 (575)

SMO는 주류 미디어가 배제하거나 왜곡하는 이슈와 정보에 대항하기 위한 대안적 프레임과 미디어의 생산에 많은 노력과 비용을 쏟는다. 상업적 주류 미디어는 사회 분쟁을 다룰 때 지역의 이익보다 자사 또는 국가의 이념과 이해 관계에 따라 분쟁 사안을 재구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적 미디어 활동은 사회운동을 조직화하고 확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SJI의 FB 역시 이러한 대안언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게재된 메세지의 정보 소스를 분석하는 것은 소셜미디어의 대안적 언론의 성격의 한 측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표 7은 포스팅된 575개의 메세지의 정보 소스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강정마을살리기와 관련된 SMO가 35.5%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언론사의 보도 역시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23.7%), 이는 SJI와 직접 관련된 뉴스를 공유하거나 보수 언론에 대한 반박과 반대로 진보적 언론 그리고 뉴스타파와 같은 대안언론의 관련 보도를 재인용함으로써 SMO의 주장과 시민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언론사의 기사를 주로 활용한 결과이다. 이는 표 4에서 보듯이 소셜미디어가 정보 확산과 재구성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과 미디어와의 연계성이 높은 기술적 특성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이 연구는 제주도 살리기 (Save the Jeju Island: SJI)라는 영문 FB 계정을 통해 제주도라는 지역적 운동의 지구적 차원의 연대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JI의 영문 FB 계정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JI 계정의 참여자의 특성은 기존의 교육과 지역 및 직업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네트워크 사회운동에서도 투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요 참여자들은 고학력의 수도권 거주자로서 일반 또는 전문직 종사자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인터넷 등 네트워크 기술이 고도화된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은 지역과 계층의 이용자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FB는 제한적인 네트워크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이 제주도에 기반한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거주민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의 참여를 보이고 있다. 국제 연대로서 FB는 지구적인 연대라기보다는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서구 지역과의 연대의 성격이 짇다. 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SJI의 계정이 영어라는 언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겠지만 지리적 근접성과 참여 정도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점 등은 언어적 특성이외의 요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예를 들면, 반전평화 및 환경문제와 같은 '신사회운동적'인 이슈들이 보통 서구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갖게 한다. 즉, 운동의 성격과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국제적 연대의 범위와 지역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는 특히 낮은 참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국가차원의 엄격한 사전검열과 통제라는 미디어 이용 환경의 제약성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국제 연대의 확대와 강화는 국제 사회, 문화, 기술적 환경에 따라 지역별로 참여 수준이 차별화 되어 나타나고 있고 이는 국제 공론장의 위계화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문제의식을 가지

고 연구를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팅 메세지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참여자의 특성에 비해 좀 더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포스팅 메세지의 원글에 비해 일반 참여자가 올린 글이 42.5%로 더 많이 나타나 기존 전통적 사회운동에서 SMO 중심의 기획된 메세지에서 참여적 메세지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게시글은 다양한 형식의 멀티미디어적 메세지 포맷을 통해 다양한 공유 플랫폼으로 생산-복제-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네트워크 기술의 네가지 가능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표 6에서 나타나는 포스트 메세지의 성격 분석을 통한 SJI의 네트워크 사회운동 레퍼토리는 정보제공이라는 제한된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었다. 매스미디어적인 이러한 네트워크 미디어 활용은 다양한 집단 행동 유발과 네트워킹 전략의 개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포스팅 메시지의 정보 소스는 대부분이 SJI SMO들로부터 얻고 있었으나 언론사도 23.7%를 차지하고 있어 네트워크 미디어가 조직화를 위한 플랫폼인 동시에 대안적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추측케 한다. 그리고 기타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개인들 역시 중요한 정보 소스로 활용되고 있어 네트워크 미디어는 기존의 SMO 중심의 사회운동에서 분명히 참여적인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대 표현 방식의 분석 결과는 네트워크 미디어를 통한 사회운동 참여의 특성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표현방식의 적극적 참여 요구 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강한 편향성을 보이며 롱테일적인 참여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Like < Share < Comment 순으로 이어지는 참여의 편향성을 네트워크 사회운동에 비판적인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단순히 수동적 참여 특성으로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크리스 앤더슨 [23]이 주장하듯이 롱테일의 법칙을 적용하여 다른 차원의 참여로 파악할 것인지는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포스팅 메시지의 지속성, 복제성, 확장성이 다양한 공유 플랫폼과 결합할 때 이러한 롱테일적인 참여의 분포는 예상을 벗어나는 적극적인 네트워크 공론장을 형성하면서 사회운동으로 진화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 존재한다.

최근의 Pew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12년 현재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참여가 지난 2008년에 비해 13%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성인인구 중 17%는 정치적 이슈를 소셜미디어에 직접 링크를 걸어 토론에 참여를 하고 있으며 12%는 그들의 '친구'를 통해 정치인이나 정치 후보자와 관계맺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참여의 증가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새롭다기 보다는 일상화되어가는 예가 아닐까 한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정치적 참여 행위가 네트워크 미디어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은 오늘날 사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산업화 시대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치참여가 그렇듯이 네트워크 미디어를 통한 정치참여는 이제 가장 일반적 정치 행위로 규정하고 참여의 사회구조적 조건과 미디어의 이용환경, 참여의 다양한 레퍼토리, 그리고 관계의 특성을 짓는 표현 방식 등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한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문 분야에서 사회운동은 언제나 예외적인 사건과 관련되거나 극히 일부 연구자의 관심속에서만 진행되어 왔다. 사회운동은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현재를 넘어 해당 사회의 미래를 진단해 줄 수 있다는 측면과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사회적 집단의식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게 할뿐만 아니라 연구 소제와 발견 내용 자체가 해당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영역이다. 무엇보다도 최근의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사회적 운동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과정의 특성 변화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보다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인 FB가 형성하는 네트워크화된 집단이 지역의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진화시키는 지에 대한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 제주강정이라는 지역적 문제의 지구적 평화운동으로서의 의미, 지역의 운동 단체가 국제적 차원의 활동가와 단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연대하는지를 부분적이나마 이해하게 해 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디어 환경의 문제가 지역과 지구적 차원의 연대를 제한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도 제기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미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특정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SJI 운동의 한국적 환경과 특정 시점의 연구라는 점에서 주요 발견에 대해 특수성을 감안한 해석을 해야한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는 한계인 동시에 특정 사례가 주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라는 점에서 기존 네트워크 사회운동과 관련한 논의에 좀 더 풍부한 예들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또다른 연구의 한계는 분석방법으로써, 내용분석이 제공해 주지 못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과정과 관련한 여러 측면들, 예를 들면, 참여자

의 인식, 메시지 생산과 유통 및 소비의 효과, 그리고 더 넓게는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지역적 그리고 지구적 차원의 영향 등에 대한 이해는 향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Affordance는 좀 더 체계화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 개념화와 조작적 정의 및 유목화를 통해 분석적 네트워크 사회운동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참 고 문 헌(Reference)

[1] Manuel Castells. “The Power of Identity”.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Vol. II. Cambridge, MA; Oxford, UK: Blackwell. 1997

[2] Sidney Tarrow.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and Contentious Politics”, 2nd 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3] Bandy, J. & Smith, J. (eds) (2005) Coalitions Across Borders: Transnational Protest and the Neoliberal Order,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Lanham, MD

[4] Howard Rheingold. “Smart Mobs: The Next Social Revolution”. Basic Books.. 2002.

[5] Yochai Benkler. “The Wealth of Networks: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06.

[6] Henry Jenkins. “Convergence Culture: Where Old and New Media Collide”. New York: NY. NYU Press. 2007.

[7] Phillip N. Howard et al. “The Role of Digital Media”. Journal of Democracy, 22(3). 2011.

[8] Summer Harlow. “Social media and social movements: Facebook and an online Guatemalan justice movement that moved offline”. New Media & Society, 14(2). 2012.

[9] Thomas Poell, Erik Borra. “Twitter, YouTube, and Flickr as platforms of alternative journalism: The social media account of the 2010 Toronto G20 protests”. Journalism, 13(6). 2012.

[10] Mario Diani. “Social Movement Networks Virtual and Real.”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3(3). 2000.

[11] Dana R. Fisher et al. “How do organizations matter? Mobilization and support for participants at five global protests.” Social Problems, 52(1). 2005

[12] Evegeny Morozov. “From Slacktivism to Activism”. http:..neteffect.foreignpolicy.com/postss/2009/09/05/from_slacktivism_to_activism [last accessed 6 May 2006]. 2009.

[13] Malcolm Gladwell. “Small Change: Why the Revolution Will not be Tweeted”. http://www.newyoker.com/reporting/2010/10/24/101004fa_fact_gladwell [last accessed 17 Jul 2012]. 2010.

[14] Jonathan A. Obar et al. “Advocacy 2.0: An analysis of how advocacy groups in the United States perceive and use social media as tools for facilitating civic engagement and collective action”. Journal of Information Policy,2. 2012.

[15] Danah M. Boyd et al.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13, 2008.

[16] Jeroen Van Laer et al. (2010). “Internet and Social movement action repertoires: opportunities and limitation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3(8), 2010.

[17] Papacharissi Norris.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11.

[18] Charles Tilly.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Reading”.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78.

[19] Tim Jordan et al. “Hactivism and Cyberwar: Rebels with a Cause”. New York: NY. Routledge. 2004.

[20] Doug McAdam et al. “Dynamics of Conten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21] Jodi Dean. “Communicative Capitalism: Circulation and the Foreclosure of Politics”. Cultural Politics,1(1). 2005.

[22] Yoon Gi Bae. “A Local-based understanding the construction of naval base in Jeju and politics of locality”. Korean National Culture, 43(5). 2012.

[23] Chris Anderson. “Long Tail: How Endless Choice is Creating Unlimited Demand”. 2006.

[24] Young Jun Choi, “A study on effects of individual creativity of UCC users for emergence of collective intelligence - how to develop a process from individual creativities of UCC users to mess opinions”. Media and Society. 20(1). 2008.

[25] Hae Sung Keum. “Participatory domocracy in the age of social”. Infomatization and Culture Current Issue. 12(3). 2013

◐ 저 자 소 개 ◑

채 영 길
1998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학사)
2002년 Univ. of Texas at Austin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Radio-TV-Film학과 졸업(석사)
2008년 Univ. of Texas at Austin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Radio-TV-Film학과 졸업(박사)
2009년~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관심분야 : 국제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 커뮤니티미디어, 다문화와 미디어, 대안미디어, etc.
E-mail : chaeyounggil@gmail.com